



鄭海洵 商工部 電子電機工業局長

## 새時代精神으로 '90年代 發展의 기틀을 가꾸자

갈등과 격동의 '80년대를 마감하고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시작하는 庚午年の 새해가 밝았다.

世界的으로는 이데올로기의 對峙時代가 막을 내리고 國家利益 우선의 實用主義의 國際關係가 급속히 形成되는 가운데, 그리고 國內으로는 새역사 발전의 걸림돌이던 5共청산이 마무리 되면서 妥協의 정치가 움트는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된 것이다.

새해는 20세기를 마감하는 年代이자 21세기를 進入하는 年代를 함께 始作하는 해이다. 그러므로 이 한 해는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榮光된 우리의 세기로 만들어 우리가 太平洋時代의 主役으로서, 高度先進産業 國家의 堂堂한 一員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90년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90년대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아 우리가 먼저 다짐해야 할 것은 이제는 과거의 갈등과 반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和合과 前進의 새時代精神을 가꾸어 나아가야겠다는 것이다. 對話와 妥協으로 創造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겠고, 經濟 각 부문간의 자기 몫 찾기가 自制

되는 가운데 産業平和가 定着되고 經濟의 活力이 다시 살아나야겠으며 社會階層間的의 위화감이 해소되고 「한마음」의 團合된 國民精神이 함양되어야겠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는 着實한 政治民主化와 健全한 經濟運用이 서로 調和의 妙를 이루면서 '90년대의 새秩序 새歷史를 創造하는 活力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있어서도 금년 한 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國內産業中 가장 比重이 크고 向後 '90년대의 성장을 主導해 나아가야할 核心産業인 電子産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對内外의 인 여건의 어려움에 直面하고 있기 때문이다.

先進國의 輸入規制擴大, 尖端技術의 급속한 發展, 기술보호추세의 強化, 그리고 後發開途國의 電子産業 急成長 등으로 對外的環境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고 빈번한 勞使紛糾와 과도한 賃金引上, 이로 인한 企業家의 경영의욕감퇴와 근로의욕 低下, 원화절상 등으로 인한 해외경쟁여건의 弱화, 신제품개발능력의 취약 등으로 국내여건 또한 크게 變化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경

쟁력 回復과 성장잠재력의 배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時急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고 電子産業政策實務를 총괄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금년 한 해를 電子産業 再跳躍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最大限의 政策的支援을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努力해 나아가야겠다.

政府, 企業, 勤勞者, 有關기관, 研究所가 모두 連環일체가 되어 核心技術의 자체개발능력을 강화하고 技術集約的인 高附加價值製品爲主로 전자산업의 構造高度化를 조속히 이루어 나아가야겠으며 勞使和合과 生産性向上으로 경영기반을 安定化하고 악화되고 있는 국제통상여건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아가야겠다. 육심같아서는 現在의 어려운 經濟與件이 빠른시일내에 호전되어 금년도 電子部門의 輸出이 現在 目標 187억불을 초과하여 國內産業中 최초로 輸出 200억불을 돌파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國內政治社會의 安定과 經濟活力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高度成長 新화를 創造하는 電子産業의 發展을 크게 期待해 본다.